

2015년도2학기 기술 및 발전 경제학-이근

설 문 내 용	결과	전체
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6(21%)	37(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5(17%)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55%)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3%)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3(10%)	
(6) 명강의로 소문나서	6(21%)	
(7) 재수강	0(0%)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다?		
(1) 1/4 미만	0(0%)	29(100%)
(2) 1/4 이상 2/4 미만	0(0%)	
(3) 2/4 이상 3/4 미만	0(0%)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4(14%)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25(86%)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다?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2(7%)	29(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0(0%)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14(48%)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12(41%)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1(3%)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9(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3(10%)	
(4) 대체로 그러했다.	12(41%)	
(5) 매우 그러했다.	14(48%)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9(100%)
(2) 그렇지 않았다.	2(7%)	
(3) 그저 그러했다.	3(10%)	
(4) 대체로 그러했다.	9(31%)	
(5) 매우 그러했다.	15(52%)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9(100%)
(2) 그렇지 않았다.	4(14%)	
(3) 그저 그러했다.	2(7%)	
(4) 대체로 그러했다.	8(28%)	
(5) 매우 그러했다.	15(52%)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9(100%)

(2) 그렇지 않았다.	2(7%)	
(3) 그저 그러했다.	5(17%)	
(4) 대체로 그러했다.	8(28%)	
(5) 매우 그러했다.	14(48%)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8(100%)
(2) 그렇지 않았다.	1(4%)	
(3) 그저 그러했다.	7(25%)	
(4) 대체로 그러했다.	11(39%)	
(5) 매우 그러했다.	9(32%)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29(100%)
(1) 너무 적었다	0(0%)	
(2) 적은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3(10%)	
(4) 많지만 할말했다.	8(28%)	
(5) 너무 많았다.	18(62%)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9(100%)
(1) 너무 쉬웠다.	0(0%)	
(2) 쉬운 편이었다.	0(0%)	
(3) 적절했다.	4(14%)	
(4) 어렵지만 할만했다.	14(48%)	
(5) 너무 어려웠다.	11(38%)	
11. 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29(100%)
(1) 매우 느슨했다.	0(0%)	
(2) 느슨한 편이었다.	1(3%)	
(3) 적절했다.	2(7%)	
(4) 딱딱하지만 할만했다.	15(52%)	
(5) 너무 딱딱했다.	11(38%)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29(100%)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7(24%)	
(4) 대체로 그러했다.	9(31%)	
(5) 매우 그러했다.	13(45%)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5(100%)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7%)	
(2) 그렇지 않았다.	1(7%)	
(3) 잘 모르겠다.	4(27%)	
(4) 대체로 그러했다.	4(27%)	
(5) 매우 그러했다.	5(33%)	
14.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		17(100%)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6%)	
(2) 그렇지 않았다.	1(6%)	
(3) 잘 모르겠다.	3(18%)	
(4) 대체로 그러했다.	6(35%)	

(5) 매우 그러했다.	6(35%)	
전체		

기타 건의사항

- I was not aware of TA sessions.
- 1) The course completed as scheduled.
- 2) The course cover wide area.
- 3) Professor is very knowledgeable in the field.
- 4) Encourage students to comment and ask suggestion. It would be useful if professor also asks students more questions during lecture time. I mean, beside encouraging students to ask it is also helpful to forward more questions to the students.
- The class overall was very helpful and informative, and also provided many ideas for the further research topic.
- I learned a lot from this class as the material of the lecture is really interesting. This calss provides continuation from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rom Prof. Yeonbae Kim, so I didn't find myself quite struggling, yet I learned new things from here. From this point onward, I will find more Prof. Lee Geun's lectures to participate into.
- The lecture on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economics was clear with real world examples and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by specific sector, industry, and the country seen over the past decade. The examples given during the lecture is more than enough for conducting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sing innovation studies. This lecture gave me full confidence to analyse now industry, firm's performance in order to formulate policy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based on the market scenario.
- It is an excellent course covering many aspects and areas concerned. The following areas may also be covered more.
 - 1) Technology Frontier
 - 2) Public domain?? Expiry of Paleui.
- The case studies were very helpful in understanding theory. Sometimes, the lecture slides were a little bit confusing.
- 수강생들 간의 관심사, 연구 교류
- 1. "Ask question" policy was impressive and it actually promoted attendance from students. But much of that question was not good. And also those frequently stopped lecture. I sometimes felt annoyed
- 2. And I prefer Korean class.
- 3. 3h 30min is too long. 2h 30m might be better in terms of concentration.
- The questions asked by Korean students are not understood by foreigners students. It'll be great if any volunteer can translate the question in order to get maximum benefit. Also, it should be mentioned in the course description that this course requires that the student has a good background about economies, just in case some students from another school registered for the course.